

특집 현대문학에 나타난 제국주의와 여성수난

식민자/피식민자, 남성/여성, 부자/빈자 -노라 옥자 켈러의 『중군위안부』를 중심으로

최혜실

국문초록

이 논문은 노라 옥자 켈러의 『중군위안부』를 식민자/피식민자, 남자/여자, 부자/빈자의 다층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중군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 일본의 학자들, 정치인들의 저마다의 목소리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진실은 중군위안부들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혹독한 고난을 당했다는 사실이며 그들의 고난을 규정짓고 하나의 방향으로 몰아가는 것은 그 사실을 말하는 사람들의 입장일 뿐이다.

노라 옥자 켈러의 『중군위안부』는 위안부 자신의 다의적이고 다성적인 목소리들을 객관적으로 재현하기 위해 여러 방식들을 고안해내고 있다.

첫째, 비선형적 서술 구조. 이 소설은 선형적으로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 아키코와 그녀의 딸 베카의 기억들이 일정한 플롯 없이 산발적으로 중첩되면서 모자이크처럼 기워져서 완성된다. 이는 혹독한 과거의 기억을 견딜 만큼 축소시키고 왜곡시키면서 기억해내는 주인공의 입장을 배려하는 여성적 글쓰기의 일종이다.

둘째, 이 작품은 미국/기독교/남성과 한국/무교/여성의 대립 구조로 되어 있다. 지배자로서 제국주의 남성들 전체에 대한 분노가 기독교와 무교의 상징 구조로 드러나며 주인공이 인척이란 중견 위안부의 영혼과 접신하면서 고통받는 여인들의 자매애를 보여준다.

셋째, 그러나 언어의 장벽 때문에 한국 여성으로서의 아키코의 목소리가 사실적이지 않은 점이 있다. 결국 종군위안부는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의 한국 해석이란 점에서 오히려 미국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종군 위안부, 구술 서사, 비선형적 서술 구조, 여성적 사유

1. 들어가는 말

1991년 여름, 소위 종군위안부¹⁾ 출신인 김학순(金學順) 할머니의 증언이 있은 후 일본의 위안부 강제 연행 '행위'는 비로소 공식적으로 세상에 드러났다. 반세기 전의 일이 비로소 가시화된 이유가 일본의 은폐 음모였든 아니면 이미 더럽혀진 자국의 여인들을 수치의 상징으로 여긴 한국의 방관이었든 간에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과 북한, 중국,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에서 종군위안부 출신 여성들이 자신의 체험을 고백하기 시작했다.

1930년대 초에 상해와 만주에서 군위안소가 설립·운영되었으며 1937년 남경학살사건을 계기로 중국, 조선, 일본 등지에서의 위안부 모집이 군 개입을 중심으로 조직적,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²⁾ 군위안부 모집에는 속임수와 강제적 구인이 이용되었고, 위안소 내에서는 엄청난 인권 유린이 행해졌다. 전후 위안부들은 많은 경우 전지에 버려지거나 심지어 학살되기도 했다.

1993년 하와이 대학에서 한국 정신대 대책협의회회의 강연이 있었고 노라

-
- 1) 정신대, 종군위안부, 성노예 등 명칭을 둘러싼 논란이 많다. 정신대란 전시체제하에 동원된, 노동력을 제공하는 집단의 범칭이므로 적당하지 않고 종군위안부는 일본 군부가 자기 입장에서 부른 것이므로 적합하지 않다. 문자 그대로 '성노예'였으나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사안이므로 일본 서류 등에 공식적으로 명명된 '종군위안부'란 명칭을 쓰고자 한다. 객관성 있는 논의를 위해 범죄, 만행 등의 용어를 일단은 최소화할 것이다.
 - 2) 김순호(원문 번역), 吉見義明(편집해설), 『자료집 종군위안부』(서문당, 1993)을 주로 참조했다. 다른 연구서에도 시기나 운영 등에 대해 큰 이견이 없었다.

옥자 켈러는 우연히 황금주 할머니의 증언을 듣고 충격을 받는다.³⁾ 그녀는 1965년 서울에서 한국인 여성과 독일계 미국인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후 69년 미국으로 건너갔다. 현재 호놀룰루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건축업을 하는 남편 사이에서 딸 하나를 두고 있다. 미국인 1.5세인 그녀가 그 강연을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리고 그 충격은 한국에서 한국 여인의 고통을 받아들이는 한국 여성들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중요하다.

그녀는 바로 나의 어머니 또는 할머니일 수도 있는 것이다.⁴⁾

어머니라는, 피로 이어져 있는 나라의 여성들이 겪은 악몽이지만 자신은 어쩌면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나라의 여성이라는 입장. 이 이중성이 켈러의 『중군위안부』의 내용과 형식의 요체를 이룬다. 모국과 모국어(mother tongue)의 차이, “나는 누구인가”로 귀착되는 자기 정체성의 혼란은 이 작품의 한계이기도 하고 의미이기도 하다.

2. 다양한 목소리들, 그리고 진실

1) 한국의 목소리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된 것은 1980년대 말부터였다. 지금도 일본인들은 아시아 각국에 매춘 여행을 가고 있으며 일본 현지 역시 많은 아시아계 여성들이 윤락 행위를 하고 있다. 또 캄보디아에 파병되는 자위대 대원들에게 콘돔 지급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⁵⁾은 중군위안부 답사 보고가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주최 ‘여성과 관광 문화’ 라는 세미나에서

3) 『문화일보』, 1997. 9. 2, p. 21.

4) 앞의 기사.

5) 伊藤孝司 사진, 기록, 『중군위안부』, (눈빛, 1997), p. 12.

처음 나왔다는 사실과 의미심장하게 연결된다.⁶⁾

그 동안 이 문제는 한국과 일본의 역사학계에서는 거론되지 않다가 여성 학계에서 매춘 관광 실태와 관련하여 공적 담론으로 떠올랐고, 이 방향은 다시 일본의 전쟁 책임을 묻고 올바른 역사 교육을 촉구하는 입장으로 선회 하여 이후 이 문제를 보는 관점의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이 경우 일단 일본군과 일본 정부는 성욕의 화신이며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식민지 백성을 대상으로 만든 파렴치한으로 상정된다.

일본 제국주의가 침략 전쟁을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으로 확대해가면서 점령 지구에서 군인들의 공간 행위를 방지하고 성 문제를 해결한다는 핑계로 본토와 식민지 및 점령 지역의 젊은 여성들을 동원하여 군대 주둔 지역과 심지어는 최전 방 전투 지구에까지 집단적으로 수용, 군인들의 성적 노리개로 전락시킨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일이다. 전쟁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길지만 소위 중군 위안부를 데리고 다니면서 전쟁을 치른 군대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찍이 있었 는지 의문이다.⁷⁾

군대 사회에 들어와서까지 공공연하게 '위안부' 를 집단적으로 데리고 다니며 전쟁을 치렀다는 사실은 일본군에만 있을 수 있는 그야말로 '특수현상' 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⁸⁾

전쟁 지역에서 강간이 자행되고 매춘이 성행하는 것은 비단 일본의 경우 만이 아니었다.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러한 행위는 2차 세계대전 중에

6)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진상조사연구위원회 엮음,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역사비평사, 1997), p. 496.

7) 강만길, 「일본군 '위안부' 의 개념과 호칭 문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진상조사연구위원회 엮음,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역사비평사, 2000) 11.

8) 앞의 책, p. 19.

독일, 소련은 물론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 한국군 사이에서도 행해졌다. 그러나 군인들의 매춘을 당시 일본만큼 세세하고 '자상하며' 조직적으로 관리한 예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아무튼 일본인의 성욕은 한국 사학자들에게 그들의 비도덕성, 나아가 그들의 전쟁 발발, 침략 행위의 비정당성을 드러내는 상징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그들의 윤리의식과 죄의식의 결핍이 부각되기 위해 상대적으로 한국 여성의 순결이 강조된다.

가난한 부모들이 딸을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가난에 못 이겨 입을 털려고 수양녀 등으로 보낸 딸들이 사실은 유괴범에 의해 유곽 등의 매음굴이나 일본군 '위안부'로 팔려간 경우들이었다.⁹⁾

조선인 '중군위안부'는 모두 매춘부 출신이 아닌 일반 처녀들이었다.¹⁰⁾

"이십 몇 명 모집한 중 몇 명은 순처녀였다" 하고 '위안부'들을 검진한 경험을 이렇게 말했다. (……) 일본인 '위안부'는 나이 많은 매춘부 출신이 많았다고 했지만 조선인이나 중국인 '위안부'는 대부분 나이 어린 처녀들이어서 그 수치심은 극도에 달했고 일본인 군의관까지 울고 싶게 한 것이다.¹¹⁾

당시 한국 여성들은 '더러운' 한갓 매춘부가 아니라 나이 어리고 순진한 처녀, 심지어 순처녀였다. 당시 한국 부모들이 딸을 매춘부로 팔았던 것이 아니라 일본인들의 꼬임에 빠져 수양딸로 보낸 것뿐이다.

이조때 여성들은 특히 유교 도덕 속에서 키워진 탓도 있어, 정조의 순결을 지

9) 앞의 책, p. 23.

10) 앞의 책, p. 25.

11) 앞의 책, pp. 29~30.

키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왔었다. 그래서 한국 여성이라고 하면 정절, 또는 순결의 심볼처럼 생각되어 왔다. (……) 또 그녀들은 순결성을 고귀한 것으로 수호하기 때문에, 어떤 자도 침범할 수 없는 사회적 특권을 인정받고 있었다. 예를 들면, 어떤 권력자라 할지라도 부녀자의 거실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다. (……) 이같은 한국 여성의 순결성과 고귀성은 한국의 민족성을 수호하는 데 있어서도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¹²⁾

이처럼 한국 여성들의 순결은 한국의 깨끗한 민족성, 외세에 굽히지 않는 절개로 곧장 연결된다. 이 방식은 많은 경우에 맞는 것으로 낙화암의 삼천 궁녀나 논개의 모습이 그러하다. 그러나 순결을 잃었을 경우, 절개를 굽힌 여성이 된다는 것이 동전의 또 한 면이라는 사실에 종군위안부들의 비극이 있는 것이다. 한국 여성을 성노예로 농락한 일본이 침략자로 비난되는 동안 종군위안부들은 이미 유린된 대상, 버린 대상으로 우리 시야에서 사라져 버린다.

위안부를 위안부의 관점에서 세세히 파악하는 여성학에서의 목소리는 이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군위안부 정책은 일본의 명백한 범죄 행위이자 여성을 성적 수단화하는 가부장제의 이중적 성문화가 낳은 여성에 대한 범죄이기도 하다. 즉 군위안부 정책은 여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정절과 순결을 강요하고 남성의 욕구 해소의 방편으로 손쉽게 그것을 박탈하는 가부장제 사회의 이중적 성문화 속에서 구성되고 실행되었다.¹³⁾

종군위안부들이 귀국 후 가족과 친지, 남편에게서 경멸과 학대를 받으면서도 스스로를 죄인이라 여기고 숨어 살았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12) 김정면, 임종국 역, 『정신대』(일월서각, 1992), pp. 11~12.

13) 이상화, 「일본군 '위안부' 의 귀국 후 삶의 경험」,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 pp. 270~271.

2) 일본의 목소리

일본 정부의 태도는 처음에는 침묵과 무시로, 그 다음에는 “조선위안부에 학대를 가한 사실이 없다”라던가 “조선인 뿐 아니라 일본인도 있었다”, “징용, 징병이 법령에 따른 것이므로 보상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되풀이했다.¹⁴⁾ 학자들은 한편,

1. 군 전용 위안소에 있었던 위안부의 총수는 만 수천 명이었다.
2. 민족별로는 내국인이 가장 많았다.
3. 군을 포함한 관헌의 조직적인 강제 연행은 없었다.
4. 전지 위안소의 생활 조건은 평화시의 유곽과 같은 수준이었다.
5. 위안부의 95% 이상이 생환하였다.
6. 위안부들에 대한 생활 원조는 다른 전쟁 희생자에 비해 융숭하다.

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¹⁵⁾

이 태도의 배면에는 자신이 가해자가 아니라 원폭과 패전에 의한 피해자라는 심리가 잠재해 있다.¹⁶⁾

반면 아시아 여성 기금 등 일본 민간 단체는 적극적인 사죄와 더불어 보상금을 지불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의 노력이 많은 일본인들의 반대와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보상을 받으라는 한국 단체, 양쪽에 의해 저지당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다.¹⁷⁾

14) 도츠카 에츠로, 박홍규 편역, 『‘위안부’가 아니라 ‘성노예’이다』(소나무, 2001), p. 32.

15) 하타 이쿠히코, 「‘위안부’ 전설을 재조명한다」, 와다 하루키 외, 이원웅 역, 『군대 위안부 문제와 일본의 시민 운동』(오름, 2001).

16) 望田幸男, 「전쟁 책임과 전후 책임」, 田中宏 외, 이규수 역, 『기억과 망각』(삼인, 2000).

17) 앞의 책.

3) 종군위안부의 목소리

위안부들은 대부분 소규모의 자작농, 소작농, 혹은 노동자의 자녀로 빈곤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학력도 대부분 보통학교 이하이다. 군위안부에 가게 된 연유는 좋은 곳에 취직시켜준다는 피임에 빠졌거나 유기납치, 강제 연행, 심지어 부모나 친척에 의해 팔린 경우도 있다.¹⁸⁾ 결국 한국의 군위안부 문제는 대체로 피식민지 빈곤 계층 여성의 문제로 귀착된다.

종군위안부의 자료들은 일본에 의해 은폐되거나 폐기, 분실되었기 때문에 많은 경우 생존 위안부들의 증언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들의 기억을 되살리는 작업은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다.

이야기하기 꺼리는 경우, 기억이 심하게 훼손되어 있거나 기억하기 싫은 경우 등에 의해 증언자들의 이야기는 복잡적이고 다면적이며 모순적이다. 이야기는 기억하기 쉬운 것, 기억하고 싶은 것, 가장 강렬한 기억을 중심으로 땅뿌리처럼 뚫어나간다. 그리고 긴 침묵, 끊어짐, 불연속성, 시간의 혼종과 연상……¹⁹⁾ 이들의 기억방식은 텍스트의 선형성(linearity)이 도저히 담을 수 없는 것이다.

이들은 군대식의 통제와 감시가 있는 위안소에서 엄청난 노동(?)과 잔혹행위에 시달린다. 성병, 닥태, 구타, 폭격 등으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당했다. 극소수 병이나 주위의 도움으로 귀환하였으나 대부분 전쟁이 끝나자 위안소에 버려져 천신만고 끝에 귀환한다. 아이를 낳은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 위안소 생활의 후유증으로 임신이 불가능했으며 결혼하지 못했거나 결혼 후에도 잘 살지 못하고 파탄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증언자들의 구술에서는 정형화된 위안부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

18)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정신대연구회 엮음,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한울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한국위원회 증언팀, 『기억으로 다시 쓰는 역사』(풀빛, 2001)의 통계자료들을 참조하였다.

19) 『기억으로 다시 쓰는 역사』의 서론 부분에 그 고충이 상세하게 나와 있다.

다. 일본군에 대한 원한은 일본군 **장교와의 사랑과 공존**하기도 하고 애기집을 **강탈당한** 현생의 원한이 아들 낳고 살아보는 후생에의 바람으로 이어지기도 하며 독립 운동가의 딸로서의 자부심은 다른 위안부들의 삶을 ‘**더러운**’ 과거로 치부한다.²⁰⁾

진실은 그들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여성으로서 말로 하기 힘든 **혹독한** 고난을 당했다는 사실에 있고 그들의 고난을 틀에 넣어 규정짓고 하나의 방향으로 몰아가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사람의 입장일 뿐인지 모른다.

그렇다면 위안부들의 다의적이고 다성적인 목소리들을 객관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노라 옥자 켈러의 『**중군위안부**』는 그 고뇌를 형식으로 담아내고 있다.

3. 기억 풀어서 서사 만들기

1) 비선형적 서술구조, 그리고 여성적 사유

이 소설은 위안부였던 한 여인의 비극적인 생애를 다루고 있다. 김순효는 언니의 지참금 마련을 위해 12세에 위안부 아키코가 되었고 14세에 위안소를 탈출, 선교사를 만나 결혼한다.²⁰⁾

브레들리 여사가 된 그녀는 딸 베카를 낳으나 위안소 **휴유증**으로 남편과 정산적인 결혼생활을 하지 못한다. 무당으로서의 삶을 영위하며 죽은 자들을 위로하는 것으로 과거의 고통스런 기억을 극복하다 죽는다. 베카는 어머니의 죽음 후 그녀의 과거를 알고 비로소 엄마를 이해하게 된다.

이런 줄거리는 베카와 아키코의 두 목소리로 이야기되는데 어떤 일정한

20) 앞의 책, p. 17.

21) 소설에서 아키코가 무당이라는 설정은 한국적인 한을 **형상화**하는 방법이고, 동시에 아키코의 남편이 선교사라는 설정과 대립되면서 서양과 동양의 종교 대립, 남성권과 여성의 대립과도 연결되는 듯 보인다.

플롯이 없이 두 사람의 산발적인 기억이 중첩되면서 모자이크처럼 키워져 완성된다. 김순효-아키코-브레들리 여사란 다중적 주체, 여기에 인덱서란 위안부의 영혼이 겹쳐져 '아키코'란 인물의 다중적 정체성을 형성한다.

베카의 기억은 아버지의 5주년 기일, 그녀가 열 살 때, 엄마가 아버지를 죽였다는 고백에서부터 시작한다. 여기에 무녀로서의 엄마의 생활, 레노 아줌마의 일화가 연상의 고리를 통해 뻗어나간다. 반면 아키코의 기억은 열 네 살 위안소 탈출에서 시작된다. 위안소에 팔려오기까지의 과정, 낙태, 탈출의 장면 장면들이 제시되며 독자는 그 조각들을 주워모아 연결된 이야기를 만든다.

베카의 기억은 아키코의 그것과 평행선을 달린다. 그녀는 엄마의 기괴한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괴로워했다. 그러나 엄마의 유품에서 발견된 기사, 편지, 녹음 테이프들을 들으며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끌어모아 김순효-아키코-브레들리로서의 엄마를 이해한다.

선형적 서술구조는 일정한 구조를 지니는 전통적 이야기이고 비선형적 서술 구조는 둘 이상의 시점, 이야기가 병치되는 구조이거나 시간과 공간의 구성이 일관성이 없으며 이야기가 여러 개의 중심을 가지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최근 처음과 끝이 분명하고 플롯이 잘 짜여진 이야기는 독자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의 진실을 주입시키고 독자를 자신의 의지대로 이끌려는 저자의 욕망을 반영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이 경향은 배제와 독단, 지배와 군림의 철학이며 기존 남성들의 사유 체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작가가 권위를 가지고 자신의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려는 태도는 상대를 억누르고 자신의 사유로 상대의 사유를 대치하려는 남성적 사고이다.

반면 여성들에게는 남성/여성, 백인/흑인, 서양/동양, 이성/감성과 같은 이분법에서 어느 한 쪽에 우위를 두고 위계와 서열을 만드는 선형적 사고를 극복하기 위해 정통 형식의 저항으로서 비선형적 글쓰기를 하는 경향이 있다.²⁰⁾

작품은 18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1. 베카, 2. 아키코, 3. 베카, 4. 아키코, 5. 베카, 6. 아키코, 7. 아키코, 8. 베카, 9. 아키코, 10. 아키코, 11. 아키코, 12. 베카, 13. 아키코, 14. 아키코, 15. 베카, 16. 순효, 17. 베카, 18. 베카의 말하기로 이루어져 있다. 16. 순효는 아키코의 한국 이름으로 그녀의 한국 여인으로서의 내력과 생, 정체성이 밝혀져 있는 장으로 작품은 한 중군위안부와 그녀의 딸의 중얼거림의 교차로 이루어져 있다.

각 장은 서로 아주 유사하고 재미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어 1 장은

베카

- 가). 엄마가 아버지를 죽였다는 고백을 한 날에 대한 기억
- 나) 신들렸을 때의 엄마의 모습
- 다) 정상적이었을 때의 엄마에 대한 기억
- 라) 어렸을 때의 기억
- 마) 엄마의 식당 취업과 생활
- 바) 레노 아줌마와 가족
- 사) 1의 고백에 대한 베카의 심경과 반응

첫 장 베카의 첫 구절은 '아버지 5주년 기일에 엄마는 아버지를 죽였다고 고백했다'란 충격적인 내용이다. 나), 다), 라), 마)는 가)와 관련된 여러 주년의 기억들이 단편적으로 제시된다. 각 장의 끝은 다시 가)의 장면으로 돌아와 마무리된다. 그런데 거의 모든 장이 위의 예문처럼 가)의 기억이 불쑥 단편적으로 던져지고 그것에 관계된 기억의 뿌리들이 넝쿨 식물처럼 달려 나오다 마지막 에피소드에서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마무리된다. 작가는 왜 이렇게 산만하고 일기 힘든 형식을 일관되게 유지하여 작품 전체의 형식

22) 최혜실, 「탈근대의 여성적 글쓰기」, 『모든 견고한 것들은 하이퍼텍스트 속으로 사라진다』(생각의 나무, 2001), pp. 229~230.

으로 끌어올리고 있을까?

비선형성은 우리 뇌의 연상 방식과 같다. 우리는 순차적으로 논리적으로 기억을 하기 보다 조각보처럼 일관되지도 않으면서 이어져 있다. 마치 하이퍼텍스트에서 정보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다중인격증, MPD(Multiple Personality Disorder) 환자들 중 일부는 자신의 고통스런 학대의 기억을 하나의 완성된 형태로 간직하기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자신이 감당할 정도의 기억의 덩어리로만 묶어낸다.²³⁾

이 소설에서 비선형성은 아키코의 기억을 작가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심리상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이라 하겠다. 아키코의 경험은 너무나 끔찍하고 참혹한 것이었다. 기억하기 싫은 것, 기억하기 힘든 것들이 기억될 때 사람들은 기억을 좀더 완화시키기도 하고 왜곡하기도 하면서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생각해낸다. 이 작품의 구조는 아키코의 고통을 형식화한 것이며 그것은 정신대 할머니들의 구술 방식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작중 인물을 이해하고 포용하며 그녀의 입장에서 생각하려는 이 '배려의 글쓰기' 방식은 작가의 여성성과도 상통하는 것이리라.

2 장의 구조를 분석해보면 이 형식의 효과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아키코

- 가) 12 세 때 위안소와 죽은 아기에 대한 기억
- 나) 선교사에게 발견되었을 때의 기억
- 다) 자신의 출생의 기억
- 라) 자신의 엄마에 대한 기억과 팔려간 기억
- 마) 중군위안부였던 인덕에 대한 기억
- 바) 남편에 대한 기억과 낙태 기억

23) 서정신, 「디지털 시대의 자아탐구」, 한국영상문화학회, 『영상문화』 1집, 2000. 6.

사) 위안소 탈출

2 장은 이렇게 시작된다.

나의 아기는 내가 이미 죽은 후에 태어났다. 열 두 살 되던 해 나는 살해 당했다. 그리고 열 네 살 되던 해 나는 압록강에 내 얼굴을 비쳤다.²⁴⁾

마취제도 없이 끔찍한 고통과 모멸 속에서 아이를 낙태 당하고 수용소를 탈출하여 죽음 직전에서 구조된 열 네 살 때의 기억을 화자는 망각 속에 지워버리려 한다. 그러나 어느 사이에 기억은 그녀의 의식 속으로 불쑥 떠오른다. 이어서 관련된 단편적인 사건들…… 독자는 그녀의 기억의 편린들을 주워 모으며 화자를 이해하게 된다.

2) 미국/기독교/남자와 한국/무교/여자의 대립 그리고 인덕

“장군인 신령님은 가장 힘이 센 귀신으로 거인 투사야. 매우 섹시하기도 하지. 그는 지금도 칼을 휘두르면서 나에게로 와서 내가 그를 인정하기를 요구하지. 난 혼신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지만 여전히 그 장군이 계속 속삭이며 전략을 세우는 소리를 들어.”²⁵⁾

위의 인용문은 아키코를 구해준 만신 아지매의 이야기이다. 자신이 섬기는 신령과 예수의 대립이 나타나 있는데 이 구도는 아키코가 미국인 목사와 결혼하는 구조와 그대로 연결된다. 아키코는 목사의 구혼을 받아들이지만 위안부 생활의 후유증 때문에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한다.

24) 노라 옥자 켈러 박은미 역, 『중군위안부』(밀알, 1997), p.29.

25) 『중군위안부』, p. 91.

그리고 그는 달콤하게 속삭이며 애무하더니 내 몸에서 옷을 벗길 때 날 움켜잡고 욕을 했다. 그가 나를 침대에 밀어놓고 내 몸에 올라타 허벅지 사이로 자신을 밀어넣을 때 내 정신은 어디론가 날아가고 있었다.

위안소에서 내 몸은 칸막이 방에 갇힌 채 수많은 남자들의 몸 아래서 꼼짝도 못했다. 앞으로도 항상 그런 상황에 처할 거란 것을 위안소의 경험으로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²⁶⁾

그녀의 의식 속에 미국인 목사와 일본군들이 동일시되고 있으며 그녀의 이런 부정적 사고는 함축된 작가의 의도와 미묘하게 일치하고 있다. 화자가 피식민자로서, 여성으로서 당한 고난과 수모, 그것에 대한 적대감이 어느 사이에 미국인 남성에게로 확대되고 있고 이 방식은 서구의 종교에 대한 한국 도착 종교의 대립구조로까지 확산되어 있다. 나아가 목사인 남편의 정돈되고 명료한 기도의 연설 구조는 신들린 무녀의 중얼거림과 대립을 이룬다.

화자가 남성과 의식적으로 대립되어 있다면 여성과는 혼연일체의 연대감을 보인다. 그녀는 종군위안부로서 자신이 사람임을 절규하다 일본인에게 무참하게 학살당했던 인덕의 혼령을 몸주로 섬기며 여생을 살아간다. 이 모티프는 우연히도 혹은 의도적으로 셸리 잭슨(Shelley Jackson)의 『누더기 소녀』(Patchwork Girl)란 하이퍼텍스트 소설과 일치한다.

소설 속의 화자는 우연히 여성 괴물을 만난다. 처음에는 프랑켄슈타인처럼 시체의 조각들로 꿰어진 그녀의 몸에 공포와 이질감을 느꼈으나 차츰 친밀감을 느끼게 된다. 화자는 흉터 투성이의 그녀의 몸을 포용하며 일체감을 느낀다. 화자는 자신의 살을 잘라내어 그녀의 몸의 일부분으로 만들고 싶어한다. 그러써 내가 그녀 안에 살고 그녀는 내가 아는 '나' 자신을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²⁷⁾

여성들이 서로 이해하고 연대하는 과정을 비유한 이 모티프가 『종군위안

26) 『종군위안부』, p. 154.

27) 『모든 견고한 것들은 하이퍼텍스트 속으로 사라진다』, pp. 227~228.

부』에 사용되었으며 두 작품이 다 비선형적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은 흥미로운 일이다.

3) '미국' 여자의 한국 여자 보기, 그 화해의 한계와 성과

이 소설의 문제점은 베카의 목소리가 궁극적으로는 미국 여성의 체취와 가치관을 담고 있는데 반하여²⁸⁾ 아키코의 목소리가 한국인에게는 기괴할 정도로 낯설다는 점이다.

가) 선교사들은 몇 명의 여자애들을 천국과 지상 맨틀라툼과 성냥회사의 종업원으로 고용시켜 주었다. 일본인들은 외국의 영향을 신뢰하지 않아 기독교를 방해했지만 황제에게 돌아갈 수의 사업은 권장했다. 그러한 일본인들로부터 방패막이로 사용된 지상 맨틀라툼과 성냥 회사 건물은 일본의 통치가 시작되었을 때 세워져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²⁹⁾

나) 벌써 해방되었다 하니까, 저것들끼리 전화하고 뭐하고 아무도 없어 군인들은 다 달아나고. 그래서 난 어떡해 돈이 있어야 어딜 가지. 그래서 걸어서 걸어서 신발도 없고 옷도 없고. 그래서 걸어서 걸어서 산등에서 와 가지고. 그래서 나와 가지구서 빙강성 거기서 고생하다가, 거기서 일본 할매가 술장사하는 사람이더라고. 아이고 그 할매가 그래서, 이쁜 여자가 말이야 이렇게 돼서 어떻게 하냐고. 그 래 내가 그 죽을 고생을 천번 만번 해도 못한다고.³⁰⁾

가)는 소설의 주인공이 탈출 후 생활을 이야기하는 대목이고 나)는 평양 출신의 군위안부 김화선 할머니의 회고이다. 가)가 영어의 한국어 번역임을 고려하고 소설의 주인공이 미국 생활을 오래 했음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28) 지금까지의 필자의 경험과 지식으로 미루어 베카는 미국 여성으로 받아들여진다.

29) 노라 옥자 켈러(박은미 역), 『종군위안부』(밀알, 2001), p. 101.

30) 『기억으로 다시 쓰는 역사』, pp. 38~39. 김화선 할머니의 이야기.

결코 한국인의 언술 구조라고는 할 수 없다. 피동문이 많은 것, 14세의 어린 소녀가 당시 일본 통치의 역사를 알고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무엇보다도 ‘천황’이라는 말 대신 ‘황제’라는 말을 쓴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천황’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감각을 미국인은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이 소설은 베카의 담론 속에 녹아있는 아키코의 담론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베카는 어린 시절 맛보았던 김치, 비빔국수의 그것처럼 엄마와 연결되는 한국을 감각으로서만 이해하고 있다. 그것은 작가가 회고하는 한국의 이미지와 같은 것이다. 작가는 자신의 딸에게 김치를 맛보이며 어린 시절의 엄마를 기억하고, 엄마-자신-딸에게로 이어지는 핏줄을 상기한다.³¹⁾ 그것은 감각의 차원이면서 한국 본연의 김치가 아니라 작가의 미국 체험에 녹아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의 해석이며 한국인으로서의 정체감의 본질이기도 하다.

소설의 끝에서 베카는 어머니 아키코를 이해하는데 마지막 그녀의 꿈의 장면에서 모녀의 화해가 상징적으로 나타난다.³²⁾

4. 나가는 말

중군위안부를 둘러싸고 일본측과 한국측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일본은 너무나 분명한 가해자이며 그들의 음모는 밝혀지고 응징되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분명한 피해자인 중군위안부들에 대한 보상과 배려일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끔찍한 고통을 받아왔고 그들의 고난을 규정짓는 행위는 자칫 그것을 말리는 사람의 입장 표명이 될 수 있다.

노라 옥자 켈러의 『중군위안부』는 위안부들의 다의적이고 다성적인 목소

31) 『문화일보』, 1997. 8. 20, p. 27.

32) 노라 옥자 켈러, 박은미 역, 『중군위안부』(밀알, 2001), pp. 302~303.

리들을 객관적으로 재현하기 위하여 비선형적 서술구조를 취하고 있다. 아키코와 베카의 시점을 병치시키면서 그들의 기억의 편린들을 조각보처럼 모자이크 형식으로 배열하고 있다.

언어의 장벽 때문에 아키코의 목소리가 사실적이지 않은 점이 있으나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한국의 해석이 미국인에게는 더 설득력 있게 와 닿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 필자 : KAIST 인문사회과학부 교수

Abstract

Oppressor/The oppressed, Male/Female, The rich/The poor
-<Comfort Woman> by Nora Okja Keller

Choi, Hai-Sil

The case of 'comfort women' has attracted considerable attention by Many scholars and statesmen in Korea and Japan. They talks about them by their point. However, it is the only truth that comfort women have been suffered by Japanese soldiers or Japanese Imperialism and alienated with their family and Korean people, nevertheless they are not in fault.

This work is composed of unique structure in order to represent the multi-vocality of comfort women objectively.

Firstly, this work's characteristic is nonlinear narrative. It is experimental work, which combines two voice, Akiko and Becca., with 18 chapters, composed of a collage of their discourse. It is true that each fragment is juxtaposed with the others in collision.

Secondly, Keller takes the opposite structure of America/Christinity/male and Korea/Shaminism/female in this work. The anger against the patriarchal system and Imperialism is symbolized by the opposition between two religion. Besides, Keller shows sisterly affection among women who had the same bitter experience, by that akiko is possessed by Indok, comfort woman, killed by Japanese soldiers.

Finally, Keller is not able to pass the limit of cultural and lingual difference, because Akiko's utterance is not that of Korean woman, but that of Korean-American.

참고문헌

- 강만길, 「일본군 '위안부' 의 개념과 호칭 문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진상조사연구위원회 엮음,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 역사비평사, 2000. 11.
- 김순호(원문 번역), 吉見義明(편집해설), 『자료집 중군위안부』, 서문당, 1993.
- 김정면 지음(임종국 옮김), 『정신대』, 일월서각, 1992.
- 노라 옥자 켈리(박은미 역), 『중군위안부』, 밀알, 2001.
- 서정신, 「디지털 시대의 자아탐구」, 한국영상문화학회, 『영상문화』 1집, 2000. 6.
- 이상화, 「일본군 '위안부' 의 귀국 후 삶의 경험」,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진상조사연구위원회 엮음,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 역사비평사, 1997.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정신대연구회 엮음,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한울.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한국위원회 증언팀 『기억으로 다시 쓰는 역사』, 풀빛, 2001.
- 최혜실, 「탈근대의 여성적 글쓰기」, 『모든 견고한 것들은 하이퍼텍스트 속으로 사라진다』, 생각의 나무, 2001.
- 하타 이쿠히코, 「'위안부' 전설을 재조명한다. 와다 하루키 외, 이원웅 역. 『군대 위안부 문제와 일본의 시민 운동』. 오름. 2001.
- 望田辛男, 「전쟁 책임과 전후 책임」, 田中宏 외, 이규수 역, 『기억과 망각』, 삼인, 2000.
- 伊藤孝司 사진, 기록, 『중군위안부』, 눈빛, 1997.
- 『문화일보』, 1997. 8. 20.
- 『문화일보』, 1997. 9. 2.